

책과 함께 오늘부터 '올로 라이프'

<YOLO-You Only Live Once>

새 문학 브랜드 '올로올로' 눈길

'맨홀·델 문도' 등 10권 출간 치유의 문학으로 현대인 위로 표지 안팎 개성 있는 장식도

'올로'(YOLO)라는 말이 있다. 원래의 말은 "You Only Live Once"로, 인생은 단 한 번 뿐이니 현재의 삶을 즐기라는 뜻이다.

'올로'는 오늘을 사는 청소년과 청년들의 삶의 태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신조어다. 이 말이 처음 등장했던 것은 지난해 tvN 예능 '꽃보다 청춘'에서다. 예능 프로그램의 전파를 탄 이후 올로라는 많은 이들이 아는 보통명사가 되었다.

한편으로 '올로'는 험겨운 오늘의 시대를 열어가려는 독자들을 위한 응원과 위로의 메시지가기도 하다. 한 번뿐인 삶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자 열망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해와 공감이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문학'의 힘일지도 모른다.

출판사 사계절이 최근 창립 35돌을 맞아 '올로올로'라는 이름의 새로운 문학 브랜드를 내놔 눈길을 끈다.

'올로올로'에는 오직 문학만이 가진 치유와 공감의 힘이 독자들의 삶을 올로올로하게 하리라는 굳은 믿음이 담겨 있다. 좌절과 무력감이 혼자의 것이 아니라는 위로, 혹독한 현실에서 뒤흔치나올 용기, 씩씩한 삶에 이직은 존재하는 사랑과 유머 등을 포괄한다.

'올로올로'는 지난 1997년부터 '청소년문학'을 개척해온 '사계절1318문고'의 20주년 기념 브랜드이기도 하다. '청소년문



문학 브랜드 '올로올로'의 첫 번째 시리즈로 출간된 10권의 소설. <사계절 제공>

'올로올로'는 디자인 학교 PaII(파두타이포그라피학교)에서 스승 혹은 배우미로 활동 중인 젊은 아티스트 18인이 일러스트

학이라는 장르를 처음 알렸고, 현재 109권의 작품에 이를 만큼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뒀다. '청소년문학'의 테두리에 갇히지 않고, 성인 독자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일반문학으로서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올로올로'를 기획하게 된 것이다.

한편 이번 초정강연은 재단 마한 역사문화연구 TF팀이 주관하며 자세한 사항은 재단 문화재연구소(061-287-6803)로 문의하면 된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와 디자인을, 북 디자이너 오진경이 총괄 아트디렉션을 맡아 사계절출판사와 함께 한 산학협동 프로젝트다.

각각의 책마다 개성을 살리면서도 시리즈 전체의 통일감도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 제목을 은근히 숨긴 표지, 펼쳐면 한 장의 포스터가 되는 커버 등은 감각적인 북 디자인의 면모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강말실 사계절 대표는 "올로올로" 브랜

드 10종 출간 설명회에서 "문학이 우리 사회의 평범한 이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민했다. '올로올로' 브랜드를 매개로 앞으로도 좋은 책을 만들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올로올로 첫 번째 시리즈 10권은 국내 소설 5종, 외국 소설 5종으로 나뉘어 있다.

비교대상이 없는 작업으로 한국 문단에 뚜렷한 자취를 남긴 박지리 작가의 '맨홀'을 비롯해 호프만 세상을 건지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작은 위안을 주는 최상희 작가의 '델 문도'가 포함됐다.

소시민들의 눈물과 웃음이 담긴 김해원 작가의 '추락하는 것은 복근이 없다', 당당히 자신의 삶을 살아 낸 여성들의 휴먼 드라마인 이금이 작가의 '가기, 내가 가면 안 돼요?'와 1318문고의 역사와 함께해 온 스테디셀러인 박상삼 작가의 성장하는 이들을 위한 소설 '봄바람'도 눈에 띈다.

뿐만 아니라 상처를 감싸안는 법을 알려주는 신시아 라일린트의 '그리운 메이 아줌마', 죽음과 죽음 사이에서 빛나는 삶의 가치를 보여주는 로버트 뉴턴 펙의 '돼지가 한 마리도 죽지 않은 날'도 읽을 만하다.

그리고 마이테 카란사의 '독이 서린 말'은 독특한 스토리텔링과 소름 끼치는 반전의 문체적이며, 라일 판 코에이의 '바르톨로메는 개가 아니다'는 인간의 존엄성을 되새기게 하는 작품이다. 중국 최고 소설가 창신강의 '나는 개인니까'는 기막힌 풍자가 번뜩이는 우화 소설이다.

장술기 편집자는 "대단히 많은 책들이 나와 빠르게 사라지는 시대에 한 권 한 권, 공들여 만든 책을 소장하는 기쁨을 되찾아 주는 시리즈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직구로는 넘기기 힘든 사랑과 이별

김병호 시집 '백핸드 발리'



김병호 시인

"새 학기가 되면 어머니는 때 지난 달력으로 책가위를 해주셨다. 하얗고 뽀얀 책가위 위에 도드, 국어, 산수를 적어놓고 마지막에 김병호라는 이름을 정성 들여 반듯하게 써 주셨다. 시를 쓰는 일이, 어머니의 그런 마음을 다만 흉내 내어 보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불현듯이 스쳐 갔다."

'직구의 시인'으로 불리는 광주 출신 김병호 시인이 세 번째 시집 '백핸드 발리'(문학수첩)를 발간했다.

2013년 두 번째 시집 '밤새 이상을 읽다'로 제8회 운동주 문학대상에서 '젊은작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번 시집에서 시인은 한층 깊어진 시선으로 세상과 삶을 바라본다. 그의 시선은 세상의 그늘, 굵고 화려한 꽃송이를 매단 가느다란 가지가 제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휘어져버린 '꽃나무의 피곤'과 같은 곳에서 시작한다. 이것이 그가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풍경이기도 하다.

'백핸드 발리'에서 화자는 '커브'를 통해 "당신 없이도 고독을 매수하는 방법"을 배웠으며, '백핸드 발리'를 통해 "명량한 이별을 기억"하는 자세를 익혔다고 한다.

또한 시인의 시는 낯선 감각의 새로운 시를 짓기보다는 일상을 둘러본다. 일상에 갇혀 전전긍긍하며 하루를 살아 내지만 형상이나 기미 없이, 얼룩처럼

흔적으론 남는 것들에 자주 마음이 기운다.

마흔 넘은 남자가 딸아이와 함께 봉송아이를 들이다 아이 엄마에게 편지를 받는다. "나비처럼 밤새 가버워지는" 마흔이라고 "꽃이 되고픈 마음"이 없을까(꽃의 지리). 마흔 넘은 남자는 "자면서도 울음을 그치지 못하는" 딸애의 침대 끝에 걸터앉아 "서로의 불이 달라도 삶은 다정해"지기를 바라다(봄의 미로).

문학평론가인 최현식 인하대 교수는 '커브(curve)식 고독 혹은 사랑'에서 "백핸드는 '포핸드'에 비해, '커브'는 '직구'에 비해 기술적 훈련이 더욱 필요하고, 상대방의 심리나 상태에 훨씬 자세해야만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병호 시인은 2003년 문화일보 신춘문예에 '정글들이 별자리처럼 빛날 때'가 당선돼 작품활동을 시작했다. 시집으로 '달 안을 건다', '밤새 이상을 읽다'가 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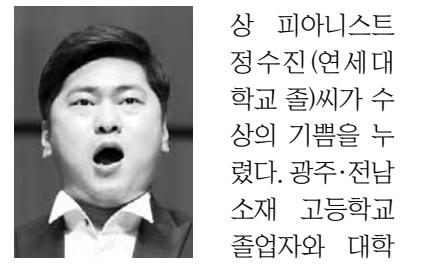
정율성축제 '광주성악콩쿠르' 1위 박기훈씨

대한민국 음악계를 이룰 차세대 젊은 성악가를 뽑는 2017정율성음악축제 '광주성악콩쿠르'의 1위 영예를 서울대학교 재학 중인 테너 박기훈(사진)씨가 차지했다.

지난 26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열린 '2017정율성음악축제' 광주성악콩쿠르 본선에서 테너 박기훈씨가 1위를 차지, 상금 1500만원을 거머쥐었다.

1위를 차지한 박기훈씨는 한국가곡 '벚노래', "Nebbie"(O.Respighi곡), "Tombe digli avi miei... Fra poco a me ricovero" from Opera "Lucia di Lammermoor"(G.Donizetti곡) 등 세 곡을 탄탄한 음성과 안정적인 고음으로 불러 1위의 영예를 안았으며, 특선으로 2017정율성음악축제 하반기 공연 시 협연 기회를 갖게 된다.

이어 2위 소프라노 박예랑(한국예술종합학교 재), 3위 라하영(한국예술종합학교 재), 정율성가곡상 김동규(국민대 재), 우리가곡상 소프라노 박재은(프라이부르크국립음대 재), 반주



상 피아니스트 정수진(연세대학교 재)씨가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 광주·전남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와 대학교 재학 및 졸업자에게 주어지는 향토상과 고향상은 각각 소프라노 박나래(전남대 재)과 바리톤 양진영(한국예술종합학교 재)씨가 수상했다.

이번 '광주성악콩쿠르'는 지난 6월 12일부터 접수를 시작, 총 89명(남자 47명, 여자 42명)이 참가해 2차례 예선전을 거쳐 12명이 본선에 올랐으며 심사위원장 박성원(연세대학교 명예교수), 박정원(한양대학교 교수), 이원준(한국성악가협회 이사장), 유미숙(명지대학교 교수), 장유상(단국대학교 교수), 김영미(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를 비롯해 총 10명이 공정한 심사를 진행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마한의 발전'... 전남문화관광재단 내일 특강

마한 사회의 발전은 어떻게 이루어졌고, 마한 사회는 전남의 정체성과 어떤 연관 관계가 있을까?

마한 사회의 발전을 다각도로 조명하는 특별 강연이 마련된다.

전남문화관광재단 문화재연구소는 30일 오후 3시 재단 대회의실에서 마한 역사의 우수성을 알리고 도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한 역사 특별강연을 개최한다.

이번 특별강연에는 지역의 찬란한 고대 역사문화이지만 제대로 연구 복원되지 못하고 있는 마한사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해 임영진 전남대 교수가 '마한사회의 발전과 그 배경' 주제로 강연을 나선다. 강의에서는 마한사회의 발전과 배경을 고고학

자료를 바탕으로 마한의 백제 편입시기와 위치, 발전배경, 한계를 통해 그 독자적인 문화에 대해 강연한다.

전남문화관광재단 오영상 사무처장은 "이번 초청강연을 통해 아직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마한사에 대한 역사관을 확립하고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전남지역의 정체성과 지역사를 규명하고 전남의 발전을 위한 기초강연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초청강연은 재단 마한 역사문화연구 TF팀이 주관하며 자세한 사항은 재단 문화재연구소(061-287-6803)로 문의하면 된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제2회 마한문화축제의 한 장면.

2층 상가매매 (CGV 광주용봉점)

카페(인테리어완료), 병원, 미용실, 학원, 당구장, 탁구장, 체육관 등

- 전용 289㎡ (약87평) 분양면적 약150평
- 현재 카페 인테리어(160㎡) 및 공실(129㎡)
- 매매 7억원(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원

락 볼링장 매매 (CGV 광주용봉점)

최신인테리어 락 볼링장, 현성업종, 직영하실 분 유망사업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원

문의 010-3647-4747

상기물건은 전속중개 물건으로서 급매가 입니다

www.솔향기맑은터.com

NAVER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참숯가마

09시 오픈! 22시 마감!

맛의향연

솔향기 맑은터는 충청남도 정월동 그리고 혁신도시에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베는날 화, 목, 토, 일 불베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0인승, 20인승 무료이용 열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염가공급 1톤 30만원 (양동,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한우가격의 2/3

외구 갈비살 20,000원
외구 눈꽃살 25,000원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불포화지방산(올리고산)이 대부분인 외구전문점
- 돼지갈비 이상 메뉴 주문시 찜질방 20% 할인
- 주말 및 단체모임은 사전예약을 해주시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각종모임(상견례, 가족모임, 기업체모임)/컨퍼런스룸/참숯가마 찜질방/노래방 & 동전노래방